



▲평택지부는 매년 1회씩 전회원이 참석하는 야유회를 개최하여 친목도모와 단합을 추구하고 있다.  
'96년도 야유회때 롯데월드 앞에서

## 지 부 탐 방

### 회원농가의 든든한 구심체 역할을 감당하는

# 평택지부

취재 : 이 병 석 기자

**최근의** 양돈업계를 바라보면 참으로 많은 변화에 노출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의 양돈농가로 하여금 1차 산업으로 안주하게끔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

외국과의 무한 경쟁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우리 양돈농가들도 세계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되었으며 기르기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고 철저한 생산비 절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하며, 이 뿐만 아니라 같은 양돈을 하는 농가간에 상호 연대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으로 생존해 나가고자 노력을 경주해야만이 이 시대에 양돈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대한양돈협회는 전국에 9개의 도협의회와 78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지부를 통해서 각종 양돈현장에서 일하는 회원들의 고충과 바라는 정책사항 등을 수렴하고 이를 중앙회에 보고하게 되면 중앙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정부에 직접 건의를 통해 해결하는 등 양돈농가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부에서는 회원단합과 국제경쟁에서 살아남

기 위한 활로를 공동으로 모색하고, 다각도의 사업을 전개하여 회원농가들이 경쟁력 있는 양돈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회원농가의 든든한 친구 평택지부

본회 평택지부는 지역 양돈인들을 하나로 묶어 다각도의 사업을 전개하여 회원 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회원농가의 든든한 구심체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지부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평택지부는 지난 '83년 그 지역 양돈가들이 돈우회를 결성한 이후에 '87년에 협회로 승인되어 현재까지 협회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부장, 부지부장, 총무, 고문 2명, 이사 5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회원수는 75명이다.

평택지부는 돼지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매년 돼지고기 시식회를 개최하여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각종 포스터 등을 배포하고 매달 월례회시 질병, 사양, 기자재 등에 대한 세미나를 병행하여 회원들에게 각종 사양정보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매년 1회씩 전 회원농가가 참여하는 야유회를 개최하여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었다.

### 평택축산영농조합법인 설립

평택지부는 지부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부회원들의 보다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6월에 지부회원중 62명이 자본금 3억원을 출자하여 평택축산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평택지부는 영농조합을 통하여 여러가지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우선 농협을 통해 서울사료와 계약하여 월

1,300톤을 회원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톤당 마진율 중 4%를 농협 2.5%, 협회 1.5%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온 등, 갓, 습식 급이기 등의 기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회원농

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고 있다. 또한 5톤트럭 2대를 구입하여 지부회원농가의 돼지를 출하시켜주고 있었는데, 출하는 롯데(1일 2차출하), 사조산업(1일 1차출하), 한냉(1일 4차출하)에 계약출하를 하고 있었으며, 서울도매시장에도 출하를 해주고 있었다.

그 외에 백신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회사와 지부간에 계약을 맺어서 회원농가를 소개해 준다. 이 사업은 7월부터 처음 실시하였는



▲우측에서부터 이교현 전지부장, 이공훈 지부장, 정성준 총무과장, 최옥순 씨

데 현재 5농가가 1달에 2번 백신용역을 받고 있으며, 계속 확산되고 있는 단계이다. 용역비는 지부에서 업체에 지불해 주며, 회원농가는 용역비를 지부에 제출하는데 여러농가를 지부에서 묶어주기 때문에 회원농가에서는 용역비를 저렴하게 지불하고 있었다.

### 분뇨처리 대두, 정부지원 아쉬워

평택지부에서는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분뇨처리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시정부 차원에서 평택시 신대동에 98년 가을 완공을 목표로 축분처리장을 건립하고 있는 중인데 이는 1일 뇨를 300톤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다.

평택지부 이공훈 지부장은 하지만 이 시설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하고, 유기질 비료 공장 등을 정부차원에서 설치하여 환경문제로 접근하는 정책적인 사항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현재의 정부지원정책자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타축종에 비하여 양돈분야는 보조받은 금액으로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부담요인이 들게 되며 사료 값 부채에 의한 생산비가 더욱 올라가고 운영자금도 농가당 1~2천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는 단기 자금이므로 1년후에 상환해야 하므로 경영합리화가 되지 않는 등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점을 정부에서 감안해 주어, 양돈농가가 제대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피력했다.



▲지부는 더욱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회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지난 6월 평택축산영농조합법인을 창립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돈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가지 지부사업과 회원농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부운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 함께 국제경쟁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평택지부를 바라보며, 아무리 수입이 완전 개방되고 외국의 값싼 돼지고기가 밀려들어온다고 할찌라도 지부를 통해 뚝뚝 뭉친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 양돈산업의 어둡지만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